



금강산



8

2026년

루게 제 444호 월간

표지: 열중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를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여 모범적인 청년들과의 상봉모임에서 부를 노래편습에 열중하고있는 리광일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당시)과 김송미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의 얼굴마다에 기쁨이 넘쳐흐른다.

사진 김영호



2 ||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6 || 영원한 전진동력

일화

7 || 위민헌신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8 || 옥돌공예 《수닭》

수기

9 || 해방, 그 이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10 || 쏘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12 || 8월 25일,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14 || 조국청년들과 숨결을 함께 하며

인상기

16 || 조국청년들을 본받겠다

16 || 신념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기

17 ||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며

18 || 화목하고 단합된 지부

20 || 가보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22 || 학계의 이목을 모은 수학자

24 || 사진으로 본 평양의 모습

30 || 독특한 소리색갈로

32 || 태권도선수후비들이 자란다

33 || 박사학위를 받은 처녀연구사

34 || 먼적외선기술로 특허권을 받다

36 || 영웅가정의 가풍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38 || TV연속극의 주제를 창작한 《작가》

39 || 제자의 《어머니》가 되여

40 || 보통강반의 청량음료점

44 || 바다가도시에 새로 일떠선 봉사기지들

47 || 호평받는 천연건강식품

48 || 땅속에 묻힌 과거의 비밀을 밝혀

50 || 기백있고 흥취나는 민간기악곡 《신아우》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2 || 송양서원

53 || 애국명장들의 묘와 비

지명 유래

54 || 삼일포

력사인물

55 || 애국적시인 리제현

력사이야기

56 || 정선이 그린 금강산산수화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오늘 우리 인민은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전례없는 증산성파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올해 석탄생산목표점령의 전위에 서있는 천성청년 탄광의 탄부들, 수도 평양을 훌륭히 전변시켜 나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그 어느 일터에 가보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힘이 제일이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는데 발전과 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이다.

둘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조선혁명의 장구한 시련의 나날들에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왔다.

지난 5년간만 놓고보아도 우리 인민은 비록 모든것이 어렵고 난관과 시련이 수없이 앞을 막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랑찬 성과들을 련속 이룩하였다.

국가방위력이 끊임없이 장성강화되었고 경제 분야에서는 다년간의 발전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생산장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지방발전 정책이 강력히 실행되어 2년동안에 40개의 시, 군들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완강하게 추진되어 근 6만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섰으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농촌살림집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11만 3 000여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새로 일떠서 농업근로자들에게 새집들이기쁨을 안겨주었다.

전반적인 기술개선사업의 성공적개시와 과학 기술과 교육, 보건사업에서 진일보가 이룩되는 등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으로 정신적

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것을 쟁취하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간고함을 무릅쓰고 철저히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처리방식에 일관하였기에 우리는 의존심이 아닌 자신심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성실할수 있었고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는 대비할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전취할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기기간 이룩한 성과는 명실공히 우리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분투로써 안아온 승리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치 실력과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의의를 가지는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결되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중요당회의들과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난관을 비약의 디딤돌로 전환시킬수 있는 묘술도 하나 하나 가르쳐주시며 우리 힘으로 더 좋은 우리의 것을 창조하도록 자력의 신념을 백배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자주, 자존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의 혁명적인 투쟁방식,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자력갱생의

무진막강한 힘을 증폭시켜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그이께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존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건설전략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서는 우리가 얻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소득은 우리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게 될 바다가양식에 신포사람들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묘술을 과학으로 터득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자생자결을 빈말로 외우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실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그이이시였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투쟁과업과 방략들은 인민들에게 새로운 투지와 열정,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고 국가의 룡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령적지침이였다.

하기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것을 만들어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제일 기뻐하시며 제일먼저 그곳을 찾으시여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신 그이이시였다.

지난해 11월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의것이라고 자부할수 있는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기풍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민음을 주시였고 올해 정초 준공을 앞두고있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을 찾으시여서는 건설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자생자결의 진리성과 그 위대한 힘을 더 깊이 체감하였으며 억세게 다지고 키워온 우리의 투쟁기개와 창조력의 높이를 보다 선명히 직관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리상을 높이 세우고 자기 힘을 증대시켜 승리의 진격로를 과감히 열어나아가 한다는것이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에서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개척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력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것이며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자력부강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세는 더욱 승화되고있다.

수령의 위대한 령도가 있고 자력갱생을 체질화한 인민의 애국열의가 있어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은 가속화될것이다.

글 김성경, 사진 김영호, 조선중앙통신

바다가양식의 표본으로 일떠선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영원한 전진동력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은 모든 면에서 한단계의 발전을 이룩하며 다음단계에 이행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건설의 주객관적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자력에 의거하는 원칙과 문제처리방식에서는 자그마한 드림도 있을수 없다는 우리 당의 립장은 확고하다.

당 제9차대회는 이민위천, 일심단결과 함께 자력갱생의 리념을 전진의 기치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자력갱생은 우리 혁명특유의 전진방식, 투쟁 전통이다.

돌아보면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과정에 언제나 자력갱생을 전진과 투쟁의 기치로 내세웠다. 그것은 자력갱생만이 인민의 자주권을 지키고 존엄을 빛내이며 국가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때문이었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면서 우리 인민은 이 땅에서 제것을 가지고 제힘으로 떼떈하게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짓부시며 자기의 내부적힘을 부단히 강화하여왔다. 허리띠를 조이면서 이룩된 소중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오늘 비약의 도약대로 되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도처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희한한 거리들과 리상적인 농장도시, 현대농촌, 현대축산의 본보기들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자력갱생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기치이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로운 단계에 이행시키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는데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나가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은 당 제8기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킬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의 장성발전을 강력히 담보하고 제시된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는 오직 자기의 힘과 기술, 인재력량에 의거하여야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는데 단위발전의 진로가 있고 증산의 담보가 있는것이다.

지금 어느 부문, 단위에서나 걸린 문제해결을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발동에서 찾고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더 좋고 훌륭한 우리의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인민이 새 전망목표수행에 분기해나선다면 나라의 경제 전반에서 안정적이며 점진적인 발전이 이룩되고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높은 단계에 이행하게 된다.

오늘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자기 힘만을 굳게 믿고 배심있게 일해나간다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어렵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자신심이 모두의 가슴속에 차넘치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변진혁

일 화

위민천신의 나날에

유일한 처방

2023년 1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통성 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먼저 기업소에 꾸려진 선거장에 들어서시어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투표하시고 대의원후보자들을 축하해주신 그이께서는 대형압축기와 탄광부문 압축기생산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기계제품의 질을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대형압축기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는것은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대주의와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가 강화하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정치투쟁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에서 맡겨준 대형압축기생산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자신께서는 이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창조물을 보란듯이 내놓아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것이 바로 사대주의와 패배주의, 기술신비주의, 수입병을 뿌리뽑기 위한 유일한 처방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자력갱생이야말로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킬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며 만능의 방식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크나큰 믿음

어느해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 기계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때 공장의 종업원들은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값비싼 금속재료를 전혀 쓰지 않고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실리있는 방법을 연구 도입하여 성능높은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스키장에 눈을 끌림식

삭도제작실태도 료해하시고 새로 제작한 감자가루생산설비들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앞으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새형의 기계설비들을 수입 설비 못지 않게 최상의 수준에서 생산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 식료공장들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공정현대화에서 기계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완강하게 전진해온 이들의 정신세계를 중히 여기시며 하신 그이의 크나큰 믿음이 담긴 말씀이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당에서 대단히 중시하고있는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하나의 설비를 보시면서도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생산현장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어느한 설비에서 시선을 멈추시였다.

그 설비로 말하면 한해전 공장을 찾으시였던 그이께서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설비의 부족점을 보시고 우리 식으로 새로 현대화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신데 따라 만든 설비였다.

한 일군이 이 설비가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 공장기술자, 로동자들이 합심하여 만든 설비라는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설비의 작업모습을 유심히 지켜 보시다가 설비를 잘 만들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한동안 지켜보았는데 매번 정확성을 보장하였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현대화가 좋긴 좋다고 말씀올리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이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다는것을 일군들은 깊이 절감하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옥돌공예 《수닭》



옥돌공예 《수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2017년 1월 중국에 살고있는 동포가족이 삼가 드린 선물이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조국땅에는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의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

선물의 오른쪽에 형상된 조롱박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전체 인민의 념원을 담은것이며 선물의 윗부분에 형상된 꽃은 우리 조국의 무궁변영을 상징하고있다.

수 기

해방, 그 이름과 함께



나는 국가적명절을 맞을 때면 온 가족을 거느리고 개신문을 찾곤 합니다.

특히 조국이 해방된 날인 8월 15일을 맞으며 개신문광장에 들어설 때면 80여년전 하늘땅을 진감했던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의 환호성이 나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손에 손에 꽃다발과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씌여진 구호들을 들고 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각계각층 군중들의 모습도 방불히 떠오릅니다.

비록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조차 못했지만 나는 그날의 감격을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한것은 나의 어머니가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 꽃다발을 드리였으며 생전에 그 이야기를 늘 해왔기때문입니다.

해방직후 나의 어머니 최탄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일하면서도 그분을 미처 알아뵈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1945년 10월 14일 개선연설을 하시는 그이께 꽃다발을 드리는 영광의 자리에서 그토록 정열에 넘치신 모습으로 새 조국건설사업을 령도하시던 분이 바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였다고 합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피어린 항일대전사가 눈물겹게 안겨와서였습니다.

나라잃은 설움과 불행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시면서 기어이 나라를 다시 찾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

항일무장대오를 조직하신 그이께서는 일제와의 대전을 선포하시고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피어린 항일대전을 조직전개하시였습니다.

그 나날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날과 달을 이어 계속되는 적들과의 격전, 박달나무도 얼어터지는 혹한, 끊임없이 겹쳐드는 굶주림...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나가시며 신출귀몰한 유격전법으로 적들에

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끝내 조국을 해방하시였습니다.

정녕 그이께서 조국을 해방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되고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조국해방은 모든 조선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새 생활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레외가 아니였습니다.

하기에 어머니는 해방을 맞이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날의 감격이 너무도 커서 그다음해 태어난 나의 이름을 해방이라고 지었으며 우리들에게 늘 위대한 수령님을 뵈웁던 이야기를 자주 해주면서 그이께서 안아오신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떠나서 가정의 그 어떤 행복도 미래도 있을수 없다고, 대를 이어가며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오늘까지 변함없이 조국에 보탬이 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식솔이 된 지금에도 이것은 우리 집의 가풍으로 되었습니다.

나는 생의 마지막까지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것이며 나뿐만이 아니라 후대들도 애국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비파1동
30인민반 문해방

소베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전호에서 계속)

《소베트정부에서 역추과 농쟁기를 거둬갈 때까지만 해도 난 참았댔네. 아라사에서 농업 집단화라는걸 할 때 그런 놀음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걸 본받는다고 짐작했거든. 그런데 며칠전에 공동식당을 경영한다면서 숟가락, 저가락까지 다 거둬가는데 보고서는 침을 빨았네. <그래 우리 늙은이들이 공동식사때문에 하루 세번씩 자기 집 온돌방을 두고 한지로 왔다 갔다해야 한단 말이나?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살겠다. 꿈무나인지 아르젤리인지 그런 귀신단지같은 세상을 만들겠거든 젊은것들끼리나 해라. 우리는 숨이 차서 더 따라 못가겠다.>구 말일세. 그랬더니 이번에는 봉건속칭이요 뭐요 하고 로인들을 군중대회장에 내다놓고 머느리들한테 비판을 시키지 않겠나. 우리 나라 력사가 자그만치 5천년이라는데 어느 세월에 이런 해피 망측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인준인 그래두 나보고 소베트를 비방하면 안된다고 야단질이 아니요. 그래서 내 그 녀석의 사등뼈를 꺾어 놓으려구 했네.》

유격대지휘관의 아버지가 소베트의 시책에 침을 빨고 돌아섰다면 다른 주민들의 동향은 더 알아볼 필요조차도 없는것이였다.

나는 그후 유격구에서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지던 공포시기와 유격구의 해산을 앞두고 군대와 인민이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던 그 쓸쓸한 나날에 이 로인을 만났을 때 주먹으로 가슴을 팡팡 두드리며 시국을 통탄하던 그의 하소연을 자주 회상하였다.

소베트정부가 수립된 후 반년도 못되는 사이에 조종인민의 관계는 다시금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산된 지주들의 대부분이 중국인지주들이었던것만큼 5.30폭동때와 같은 갈등이 재연된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반일부대들은 이전날처럼 또다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였다. 일본군대와 만주국군대는 물론, 구국군도 적이 되고 중국지주도 적이 되었다.

항일유격대는 소규모의 비밀유격대처럼 남의 집 뒤골방에 숨어있던 창건초기의 처지와 똑같은 처지에 빠져 조선사람들이 사는 부락에 조심스레 배겨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별동대라는 간판을 부활시킬수도 없었다. 구국군은 우리를 만나기만 하면 《꼬리뽕즈》라고 답새기였다. 유격대의 활동이란 반지하투쟁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우리가 1년 남짓하게 투쟁해서 쌓아올린 모든 공적들이 억울하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소베트의 시책을 놓고 우리 동무들가운데서도 분해작용이 시작되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로씨야에 가서 혁명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나 배워가지고 와서 새 출발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간도사람들식으로 하다가는 혁명이고 뭐고 다 망치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끼리 투쟁을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같지도 않는 혁명을 할바엔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에게 효도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집에 가고싶어하는 중국동무 한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소련에 가서 공부하고싶어하는 다른 중국동무 한명은 소련에 보내주었다.

이런 사태하에서도 유격구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책전환을 단행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동만특위가 지도기관으로 존재하였지만 국제당의 시정방침에 수정을 가할만한 로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누구든지 우경의 모자를 쓸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파감히 일어나 혼란된 시국을 평정하고 유격구를 붕괴의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자면 소베트좌경로선에 맞설수 있는 결단과 새로운 테제가 필요하였다. 내가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논문을 소책자로 발표했던것이 바로 이무렵이였다.

나는 정권건설문제를 가지고 마촌에서 동장영과 논쟁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리용국 현당서기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였다. 《소베트건설사업대강에 관한 동만특위의 결의》가 이미 하달되었고 또 사수평에 소베트정부도 수립된것만큼 아무리 논쟁을 해야 소용없다는것이였고 논쟁이 잘못 번지면 제재도 받을수 있다는것이였다. 리용국은 김백룡이 소베트를 잘못 건드렸다가 우경분자로 몰리던 사건을 간단히 말해주었다.

김백룡은 북만에서 한때 현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였다. 간도지방에서 소베트조직을 앞두고 선전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사유로 해서인지 동만특위를 거쳐 소베트정부수립의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왕청5구에 나와있었다고 한다.

그는 5구에서 소베트정부를 내오게 된다는 말을 듣고 동만에서 소베트를 내오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는데 그 말 한마디때문에 우경기회주의자의 감투를 쓰고 투쟁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나중에는 북만땅으로 쫓겨가게까지 되었다.

리용국이 나에게 김백룡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1934년 겨울에 나는 념안현 팔도하자에서 그를 만났다. 그때 김백룡은 거기서 구당서기로 공작하고있었다.

나를 만난 자리에서 김백룡은 소베트시기 상조론을 들고나왔다가 우경투항주의자의 감투를 쓰던 1932년 가을을 쓸쓸하게 회상하였다. 이미 동만에서 좌경적인 소베트로선이 시정되고 인민혁명정부들이 유격구의 정사를 다스리기 시작한지 오랜 때여서 그는 좌경망동적인 소베트로선의 제창자들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비평하였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아주 똑똑하고 대가 바른 동무였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되어 소베트를 건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들고나오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김백룡은 《그 리유란 단순한겁니다. 가야히에 가있을 때 농민들과 담화를 많이 하였는데 그들이 소베트란 무엇인지 그 말뜻조차 모르지 않겠습니까. 인민이 알지도 못하는 소베트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무모한짓 같아서 시기상조라고 했지요.》 하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인민들이 소베트란 무엇인지 몰랐다는 그의 말은 그 당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솔직한 대답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8월 25일,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1960년 8월 25일, 이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도로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날이다.

애국헌신으로 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걸으시며 군력을 다져주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이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돌이켜보면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난 현대수정주의자들은 적대세력들과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을 류포시키면서 땅크와 대포를 녹여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투항주의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을 기화로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공세와 침략책동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인민군 부대를 찾으시였던것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군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군사강국으로 만드실 자신의 의지도 표명하시였다.

이날의 현지도는 주체혁명위업계승과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의한 신념과 의지로 혁명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의 령도사에서 우리 인민들이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는 나날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년년이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전쟁도발책동, 경제봉쇄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던 1990년대의 날들이다.

자주적인민으로 사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를 판가름하던 그때 그이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힘겨웠던 1990년대의 그 나날들을 회억하시며 나는 인민들이 식량이 없어 고생을 하고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것을 보면서도 잘살게 될 래일에는 우리 인민들이 나를 리해할것이라고 생각하며 수령님의 유산인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한해에도 수십번씩 철령과 1211고지,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넘고넘어 전선시찰의 길을 걸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인민, 수령님께서

가신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살았다고 하시였다.

최전연의 판문점초소길이며 오성산의 칼벼랑길 그리고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을 비롯하여 조국보위초소들과 천리전선길들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정녕 그이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로 하여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혁명무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8월 25일, 력사의 이날과 더불어 즐기게 이어진 우리 혁명의 승리와 력사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더욱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글 김리정

조국청년들과 숨결을 함께 하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있다.

협회에서는 동포청년들이 몸은 해외에 있어도 조선청년이라는 긍지를 안고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새세대 동포들에게 조국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창립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함께 흘러온 조직의 역사를 늘 알려주어 그들이 조국의 귀중함을 뼈부로 느끼도록 하고있다.

해마다 조국에서 맞이하는 국가적명절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때마다 만수대동상에 모든 동

포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를 보내고있으며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정성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백두산에로의 답사를 진행하는것과 함께 중국에서도 항일혁명투쟁의 자욱이력력한 장백을 비롯한 여러곳을 직접 밟아보고 혁명사적들을 보존하는 사업에 너나없이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부회장 리복순은 《한마디의 말보다 단 한번의 체험이 큰 작용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백두산에로의

답사를 진행하였는데 모두가 글쭉로만 보아오던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협회에서는 동북3성을 비롯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서 살고있는 청년들에게 매일 조국의 출판물들에 실린 주요내용을 체계별로 알기 쉽게 분류하여 보내주어 그들이 언제나 조국을 안고 살도록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모임때마다 조국에서 배출되는 미풍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새로 나오는 노래들을 악보로 재편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동지가 4월 26일 평양의사당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측하단 성원들을 만났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과 협회사업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있는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김송미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들과 함께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기념행사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



조국의 소식을 보며



협회사업과 관련한 모임



조국청년들과 상봉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

하여 배포해주고있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들은 경축공연무대들에 새 노래들을 올려 경축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애국의 한길을 걸어가는 동포청년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올해 청년협회에서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를 맞으며 조국을 방문하여 여러 기념행사들에도 참가하였다.

청년협회 성원들은 행사들에서 조국은 무엇으로 강대하고 어떤 힘으로 진진비약하며 조국의 래일은 또 얼마나 밝고 양양한가를 확신하게 되었다.

김송미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조국청년들처럼 애국으로 더욱 굳게 뭉쳐 해외교포운동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간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임향심, 사진 김영호

조국청년들을 본받겠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차대회를 맞으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나는 조국을 방문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사적용무로 조국에 오곤 하였는데 이번에

는 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왔으니 그 감개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은 하늘보다 더 높게 부풀어오르고 발에는 날개라도 돋친듯 훨훨 나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환대를 받았다.

그럴수록 가슴은 뜨거워만 졌다.

과연 내가 조국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던가 하는 물음이 자꾸만 귀가에서 울리었던것이다.

조국청년들은 자기의 편안과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조국의 부름에 실천으로 대답하며 정다운 집을

멀리 떠나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탄원해갔다.

정말 조국청년들은 애국자들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들의 위훈을 그토록 값높이 내세워주시어 창조물마다에 청년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신것이다.

정말이지 조국청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청년들이다.

나도 조국청년들을 본받아 생의 자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기 위해, 동포조직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겠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조수영

신념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나는 조국을 방문하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특히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등을 참관하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이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어떻게 찾았으며 렬사들이 조국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모두가 20대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꿈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둘도 없는 목숨을 바쳤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아까운 생을 바쳤

겠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신념이 가슴속에 짝 차있었기때문이었다.

이러한 신념은 오늘도 뼉뼉히 이어지고있다.

나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기념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및 해불행진을 보면서 하늘땅을 진감하는 청년들의 우렁찬 웨침에서 영원히 당을 따라 곧바로 나가려는 청년들의 신념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청년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청년운동의 력사는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영미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며

지난해 10월 나는 김일성김정일기금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하였다.

평양애육원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나는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듣게 되었다.

그 노래를 들으니 어째서인지 고국에 첫발을 내디디던 때가 떠오르는것이였다.

30년전 우리 할머니는 나를 고국으로 떠밀었다.

나라잃은 설움안고 이역땅에서 정치없이 헤매이며 온갖 고생을 다하였던 할머니는 자주 어린 나를 무릎위에 앉히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고 노래를 불러주곤 하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굽을 적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나의 눈앞에 생생히 떠오른다.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한 할머니는 1990년대 기업을 시작하던 나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고국땅에 가보라고 당부하였다.

내가 고국을 처음 찾았을 때는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고국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더욱 굳게 뭉쳐 나라를 지키고 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다그치고있었다.

나의 마음은 늘 이러한 고국



의 모습에 이끌리었고 그래서 걸음도 자주 하게 되었다.

고향집에 드나들듯 고국을 쉬임없이 찾아가는 나날에 나는 고국의 노래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는 《친근한 아버지》, 《세상에 부림없어라》, 《동지의 사랑》과 같은 훌륭한 노래들이 적지 않았다. 내가 형제들과 자식들, 친구들 앞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노래들을 불렀더니 그들은 노래가 정말 좋다고 하면서 나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이번에 평양애육원을 참관하며 원아들과 함께 노래 《세상에 부림없어라》를 부르니 정말 가슴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고아라는 부름은 불행의 대명사로 불

리우고있지만 고국에서만은 부모없는 아이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다고 행복에 겨워 노래하고있지 않는가.

지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아이들의 그 모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며 사는 고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안겨왔다.

지난 세기 나라를 지킬 힘이 약했던탓에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고국인민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으며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그 후에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자주독립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오늘 고국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고있다.

이국땅에서 나에게 《고향의 봄》을 배워주던 우리 할머니가 고국인민들과 함께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있는 내 모습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비록 해외에 살고있지만 고국의 번영을 위한 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나가겠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회원 재중동포 장홍실

우리는 앞으로도 동포들을 더욱 굳게 묶어세워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며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지부를 더욱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회장 겸 단동시지부장 주계숙



화목하고 단합된 지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
협회 단동시지부는 화목하고 단
합된 조직이다.

이렇게 된다는 동포들의 권익
과 편의보장을 위한 지부의 활

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료녕지구협회 회장 겸 단동시
지부장 주계숙을 비롯한 지부
일군들은 동포들의 가정방문을
자주 진행하여 그들속에서 제기

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성심을 다해 해결해나가고있다.
언제나 자기들의 곁으로 다가
와 크고작은 애로들을 풀어주는
지부일군들에게 동포들은 마음



동포들의 가정방문을 자주 진행한다.



서로 돕고 이끌며 일해나간다.



모범지부표창을 수여받았다.

속진정을 터놓고있으며 지부활
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부에서는 4월
15일과 2월 16일을 비롯한 명절
들에 이채로운 행사들과 모임들
을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조
국을 방문한 동포들의 소감을
지부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잡지
《금수강산》을 비롯한 조국의
출판물들을 통해 동포들이 언제
나 조국과 마음을 잇고 살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부를 화목
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활력에
넘친 조직으로 되게 하는데서
긍정적작용을 하고있다.

단동시지부는 총련합회적으로
손꼽히는 모범지부이다.



경축행사를 이채롭게 조직한다.



지부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글 변진혁
사진 김성철



가 보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양명실가정에서 -



양명실



만딸 양원과 만사위 장성



둘째딸 양재애와 둘째사위 김래룡

중국의 단둥시에는 재중조선 경제인련합회 회원 양명실의 가정인 운영하느 단둥조국무역유 한공사가 있다.

나날이 번창하느 공사를 두고 그곳 사람들은 양명실동포에게 보이지 않느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느것같다고 이야기 하군 한다.

사실 처음부터 공사일이 잘된 것은 아니었다.

너무 힘들어 주저앉은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고 남몰래 눈물을 흘린적도 많은 양명실동포였다.

그때마다 그에게 힘과 고무를 준것은 경제인련합회의 동포들이었다. 그들은 양명실동포를 위해 경제실무강습도 여러번 조직해주었고 조국방문길에도 내세워주었다.

그 나날 그는 많은것을 배웠고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무엇이라 말할수 없는 힘을 받아안았으며 조국앞에 떳떳한 사람이 될것을 속다짐했다.

특히 그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2016년 8월 조국에서 진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였다.

그는 이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양

명실동포는 《송구스러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국의 청년들처럼 어렵고 힘든 부문에 달려나가 흠 한삽 떠옮긴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들과 나란히 대회에 참가하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감격을 잊을수 없습니다.》라고 감동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양명실동포는 공사의 제일 밝고 환한 벽에 기념사진을 정중히 모시었다. 그날부터 허전하던 그의 마음은 든든해졌고 공사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어제 또 그러했듯이 오늘도 기념사진앞에 정중히 서서 하루일을 설계하고 총화짓고 있다.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두 딸과 사위들, 손자들에게도 거울이 되었다. 온 가족이 기념사진을 우러르며 인사드리고 하루 사업을 시작하고있다.

양명실동포의 만딸인 양원은 《기념사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적기둥인 동시에 우리 가정의 가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엄향심
사진 김성철



양명실은 2025년 12월에 진행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7차대회 대표로 참가하였다.



신충식

학계의 이목을 모은 수학자

무슨 일을 해도 처음 먹은 마음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한번 정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자기가 목적인것을 이루게 될것이다.

2016년 어느한 나라의 명망높은 수학교수는 자기가 발표한 단행본에서 논리적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 젊은 과학자에게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 과학자가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교원 신충식이다.

당시 중국에 나가 공동연구를 진행하던 그의 나이는 20대였다.

그후 SCI급학술잡지들에 연속 발표되는 그의 논문, 단행본들을 보면서 여러 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그의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더우기 처음 투고하는 학자들은 대부분이 3~4년이라는 시간을 바쳐야 했지만 그는 단 석달만에 논문을 신청한것은 물론 무수정으로 통과되곤 하여 학계의 이목을 모았다.

하여 공동연구조의 책임자는 그를 중히 여기었고 난도높은 문제들과 미해명의 문제해결을 그에게 많이 의거하였다.

그의 논문들은 대체로 복잡한 사물현상을 수학적모형으로 볼수 있게 하는 비국부미분방정식에 대한 결과들인데 그 결과들이 새롭다.

그가 박사논문으로 제기하였던 《일반화된

캐푸토분수계 확산방정식의 풀이의 존재성과 몇가지 성질》도 시공간비국부확산방정식의 풀이의 논리성과 풀이의 긴시간거동에 관한 새로운 결과를 확립한것으로 하여 학계의 이목을 모았다.

특히 분수계슈뢰딩거반군의 강연속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의 결과를 크게 확장한것으로 하여 대단히 의의있는것이다.

《분수계미적분학과 응용해석》잡지 책임주필은 언제나 새것을 주장하고 논리있게 내놓는 그를 토론회에 꼭꼭 초청하고있다.

다른 나라의 학자는 그를 두고 《수학을 위해 태어난 사람》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자가 될 꿈을 품었다.

한것은 그의 아버지가 늘 세계적인 수학자,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때문이다.

일본에서 살다가 어릴 때 조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는 늘 엄청난 학비때문에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곤 하였다.

신충식은 할아버지의 꿈을 자기가 꼭 이루리라



가족과 함께 공원에서

결심하고 노력하였다.

원산제1중학교때부터 신충식의 이름은 학교의 속보판에서 지워질줄 몰랐다. 그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각광의 대상이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에서 공부할 때에도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파고들수록 세계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미지의 문제들을 내가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국부미분방정식분야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수학이란 학문은 파고들면 들수록 묘연할 때도 있어 손뼉을 놓을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그는 아버지의 말을 상기했고 꿈을 이루지 못한 할아버지를 그려보며 나약해지는 마음을 가다듬곤 하였다.

이런 노력이 있어 그는 32살에 수학박사가 될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수학회회의 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있는 그에게는 하루에도 많은 초청장들이 오고있다.



글 김슬기
사진 리영철



사진으로 본 평양의 모습

8월 19일은 세계촬영술의 날이다.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조국의 기상을 담아내고 변모되는 수도 평양.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수도발전전략과 승고한 헌신에 떠받들려 평양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되고있다.

사진 김성철, 한형주, 김영호, 김혁주, 김성진

5월1일경기장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에 인민의 기쁨이
넘치고있다.



송화거리



경루동





독특한 소리색갈로

- 평양학생소년궁전 성악소조에서 -



성악지도를 하고있는 지도교원 정명신

얼마전에 진행된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평양시의 중구역 동흥고급중학교 학생 리류미가 1등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독특한 소리색갈로 노래를 부른 리류미학생의 앞날이 기대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중구역 동성고급중학교 학생 박예성과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 학생 한진아는 초급반부류에서 2등을 하였다.

평양학생소년궁전 성악소조원들인 이들이 성악을 배운지는 1년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도교원 정명신의 높은 전문능력, 과학적인 교수방법이 그들을 우승으로 이끌었을것이라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2등을 쟁취한 중구역 리철민고급중학교 학생 한진아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1등을 쟁취한 중구역 동흥고급중학교 학생 리류미



제61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2등을 쟁취한 중구역 동성고급중학교 학생 박예성



고 추측하고있다.

지난 시기 왕재산예술단에서 대중가요가수로 활동한 정명신은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던 배우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2015년에 진행된 《추억의 노래》공연에서도 노래 《정일봉에 안개 흐르네》를 개성있게 잘 불러 관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부교수인 그는 2006년부터 평양학생소년궁전 성악소조 지도교원으로 사업하면서 후비육성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그는 성악지도에서 자기식의 독특한 방법론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있다. 소리색갈이 독특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자기의 개성을 잘 살리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또한 소조원들에게 발성생리를 알려주고 그들이 자기의 소리길을 찾은 다음 소리를 내도록 교육을 주고있다.

호흡에 대하여 설명할 때도 학생들이 널뛰기를 하는것과도 같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도록 원리적으로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있다.

정열가이고 탐구심이 강한 그는 성악교육방법에 대하여 부단히 연구하면서 자기의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매 학생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나가고있다.

때문에 그가 키운 제자들은 성악적기초가 좋을뿐 아니라 자기의 독특한 소리색갈로 여러 공연들과 축전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20여년전에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여러 나라

들에 대한 순회공연에서 민요 《군밤타령》, 《회양닐리리》를 부르면서 능란한 장교연주로 인기를 올렸던 리설미학생도, 제58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노래 《사랑의 빛발》을 독특한 음색으로 불러 1등을 한 조효정학생도 다 정명신교원이 키운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 성악소조를 졸업한 학생들은 현재 이름난 예술단들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등 여러 부문에서 활약하고있다.

정명신교원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곤 한다.

《어디서 노래를 불러도 그 어떤 가수를 모방할것이 아니라 자기식의 독특한 소리색갈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한다.》

글 김솔미
사진 리철

태권도 선수후비들이 자란다

태권도를 사랑하고 배우려는 열기는 어른들뿐 아니라 나 어린 학생들속에서도 남다르다.

평천구역 간성소학교의 태권도소조원들이 그러하다.

소조가 조직된지는 몇년 안되지만 학교의 소조원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남자태권도경기에서 련승을 하였다.

이들의 경기과정을 놓고 태권도전문가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동작수행이 정확하고 전문가적 수준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이다, 전망이 기대되는 학생들이라고 평하였다.

이러한 평가속에는 체육교원 김일우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국제태권도련맹 4단사범, 국제심판원(A급)자격을 소유한 그가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소학교체육교원이 된데는 사연이 있다. 중학교시기에 태권도

를 시작하다나니 신체가 욕망에 따라서지 못하였고 동작수행에서 애로를 겪게 되었다.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소학교시기에 기초기술동작을 정확히 습득하는것이 태권도선수후비육성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체험한 그는 소학교체육교원으로 자진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욕망대로 잘되지 않았다.

천진란만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동작을 배우다가는 헛눈을 팔았으며 장난으로 이어지기가 일쑤였다. 주입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다.

김일우교원은 소조원들의 성격과 체질, 심리적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사색을 거듭해나갔다.

그는 지구성이 부족한 아이들의 성격적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적극 계발시킬수 있는 훈련방법을 하나하나 도입해나갔다.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태권도선수들의 모습이 기록된 록화편집물에 대한 시청과 《조선무술명인전》을 비롯한 력사도서들의 독서 등을 통해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었으며 도복과 띠의 색깔과 의미, 태권도들들에 담겨진 뜻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질의응답을 통해 인식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한편 하나의 틀동작을 수범해도 사물현상과 결부시켜 설명해주어 학생들스스로가 동작의 원리를 알고 습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 점차 소조원들속에서 인식능력과 훈련의욕이 높아갔으며 그것은 곧 경기우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에 진행된 2025년 전국학생소년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 남자태권도경기는 매우 치열했지만 소조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로 만만치 않은 상대팀을 이기고 우승하였다.

지금 이 학교에서 태권도소조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김강무



박사학위를 받은 처녀연구사

교육미학은 교육에서의 미적 현상과 법칙을 연구하는 경계과학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명백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미개척분야의 하나이다.

이 미지의 분야에 대한 연구에 나선 처녀가 있다.

그는 김형직사범대학 교육과학부 현대교육학연구소 연구사 박인향이다.

그가 연구사로 사업 한지는 1년밖에 되지 않는다.

박인향이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된 동기가 있다.

3년전 어느날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던 박인향은 한 교수로부터 학생들을 주동적인 탐구자, 연구자로 만드는데서 교육학과 미학을 결합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데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교육의 담당자들뿐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적요소들

을 미학적요구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것, 그렇게 되면 나라의 교육은 또 한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교수의 이야기는 그를 크게 흥분시켰다.

이렇게 되어 그는 새로운 경계과학의 개척을 결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교육미학의 본질과 특징은 어떻게 규정하며 그 사명은 무엇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가, 교육사업 전 과정을 미창조과정으로 전환시키는데서 나서는 요구는 무엇인가. ...

이 문제들을 리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교육학, 미학, 철학 등 련관사회과학들을 깊이있게 파고들었으며 그속에서 도출해낸 문제점들을 교육실천과 결부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이 나날 그는 주체의 미학사상을 교육실천에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학문인 《교육미학》을 창조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한 그는 2026년 1월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의 동료들은 《그는 리상이 매우 높다.》, 《머리가 비상하다.》, 《무엇이든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이악쟁이이다.》 등으로 박인향을 평하고있다.

김형직사범대학 교육과학부 현대교육학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김순은 《일부 적지 않은 나



라들에서는 교육미학을 단순히 학생들의 인식적흥미를 불러일으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만 국한시키고있다. 허나 박인향연구사는 교육미학을 학생들의 자주적발전,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지향시킴으로써 우리의 교육을 주체의 교육학적요구에 맞으면서도 미학적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하였다.

박인향박사는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교육과학분야의 미지의 세계를 끊임없이 개척해가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먼적외선기술로 특허권을 받다

《나는 특발성괴저로 10여년을 고생하였다. 그 기간에 많은 약들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러다가 국부조임용먼적외선복사기를 리용하여보았는데 한달후부터 동통이 멎었으며 6개월부터는 상처에 새 피부가 생기기 시작하여 1년만에는 상처가 다 아물어 정상생활을 할수 있었다.》

《무릎골수염으로 몇년째 고생하였는데 이 복사기를 사용하여 2달후부터 이상할 정도로 다리의 힘줄과 근육상태가 현저히 회복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앓고있던 소화장애도 개선되었다.》...

이외에도 국부조임용먼적외선복사기를 리용

특허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먼적외선치료
기구들의 일부



하여 난치성질병과 기타 병치료에서 효과를 본 증례자료는 수백건이나 된다.

치료기의 특징은 복사표면온도가 250~350℃로서 복사세기와 지향성이 강하고 실내온도에서도 즉시적이고 뚜렷한 국부조임치료효과와 함께 충분한 싸우나효과를 동시에 얻을수 있는것이다. 특히 유해로운 온열자극이 없는것으로 하여 늙은이들과 고혈압환자들도 편안하게 사용하면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것이다.

치료기는 어깨와 허리, 관절아픔을 비롯한 각종 신경통, 관절강직, 소화기질병, 비뇨기질병, 전위선질병, 부인병, 피부병과 알레르기 등 여러가지 질병과 골절이나 수술후의 회복치료에 특효가 있다.

개발자인 무병무역회사 무병의료기구생산소 소장 리용남은 자기의 연구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사람들이 약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과정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되찾도록 하고싶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그는 당시 우리 나라의 의학분야에 미개적으로 남아있던 먼적외선을 리용한 치료

기구개발에 달라붙었다.

설계를 해나가던 그는 사람들의 생활가까이에 자리잡고있는 싸우나용치료기구를 개발할 착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10여년간의 노력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싸우나용먼적외선복사기구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구는 질병치료에 효과가 높은것으로 하여 개발되어나오자마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기를 모았다.

그는 첫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치료효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기의 기술적지표들을 계속 갱신해나가는 과정에 우리 나라에 흔한 질석을 주원료로 하고 보다 침투력이 높은 새형의 국부조임용먼적외선복사기를 연구완성할수 있었다.

치료기의 핵심기술은 PCT/WIPO에서 2차에 걸쳐 국제특허기술로 등록되었으며 제품은 우리나라와 로씨야, 중국의 특허권을 소유하였다.

국내 및 국제전시회들에서 높이 평가된 이 치료기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고있다.

글 강소현, 사진 김영호

영웅가정의 가풍

평양시 중구역 교구동 50인민반에는 함경수영웅이 살고있다.

일흔살을 가까이한 그는 년로한 몸이지만 황해남도 벽성군 옥정농장을 자주 오가며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고있다.

알고보니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까치산영웅, 숨은 애국자라고 불려주시며 각별한 사랑과 믿음을 부여하신 옥정농장 초대관리위원장(당시)이었던 함원장영웅의 아들이었다.

함원장영웅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영예군인이었지만 자기 고향을 오곡백과 주렁지는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전변시킨 농촌일군이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원장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있으며 그를 원형으로 한 영화의 장면들도 머리에 떠올리고있다.

함경수로인이 아버지의 땀이 스며배여있는 옥정농장의 농사를 돕기 시작한것은 몇해전부터였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덕택으로 방방곡곡의 농촌들이 천지개벽되는 모습을 신문과 TV화면으로 볼 때마다 그의 눈앞

에 제일먼저 어려온것은 다름아닌 고향 옥정리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해동안의 노동생활을 거쳐 청년동맹일군, 당일군으로 성장하였으며 년로보장을 받기 전까지 중요기관에서 사업한 그가 고향을 떠난지도 어언 수십년이 되었다. 그러나 순간도 고향을 잊고 산적없는 그였다.

그렇수록 농민영웅의 피줄을 이어받고 농촌에 태를 묻은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고 자문해보았다.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박사와의 련계밑에 척박한 땅에서도 높은 소출을 낼수 있는 새 품종의 종자들을 마련하였으며 영농물자들도 가지고 옥정농장을 찾아갔다.

그렇게 시작된 길음은 안해와 자식들과 함께 계속 이어졌다. 그 나날 그가 마련한 새 품종도입시험에서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어 농장의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다.

사실 그는 여러해전에 뜻밖의 일로 몸을 심하게 다쳐 안해와 자식들의 부축이 없이는 먼길을 다니기 힘든 상태이다. 무릇사람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

면 고향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하지만 함경수로인의 소행은 비단 향토에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더구나 영웅칭호를 받은 그가 국가의 혜택속에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는 영웅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향유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생의 말년까지 고향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아버지의 모습에 항상 자기를 비추어보며 인생의 한구간한구간을 이어갔다.

옥정농장과 함경수로인의 가정사이의 인연은 오늘도 계속되

고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군 한다.

《집에 정히 간수한 부모의 영웅메달, 훈장과 렬사증을 늘 바라보며 산다고 하여 근본을 지키는것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피와 땀을 바친 그들의 한생을 잊지 않고 그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인생의 자욱자욱이 빛나는 법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함경수로인의 가정을 영웅가정이라고 존경담아 부르고있다.

글 김슬기
사진 김강무



함경수로인은 늘 자식들에게 영웅가정의 가풍을 빛내여가야 한다고 당부하군 한다.

정치용어해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억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감에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며 최고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고 혁명적당풍이다.

* * *

TV연속극의 주제를 창작한 《작가》

최근 사람들속에서 유행되고있는 노래들중에는 TV연속극 《백학벌의 새봄》의 주제가 《정깊은 어머니처럼》도 있다.

이 노래는 손전화기착신음으로도 뻘스안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시로 울리고있다.

일꾼들이 사람들을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처럼 사랑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는 노래는 가사도 좋고 곡도 좋은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겨 부르고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은 현역작가가 아니라 최고검찰소 책임검사 김정남이다.

검사라는 직업과 문학이란 분야가 잘 어울리지 않는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 군중문학창작활동의 생활력뿐 아니라 가사뒤에 비껴있는 한 검사의 생의 자욱을 더듬어보게 된다.

무릇 사람들은 문학을 보면 그 작품을 쓴 필자의 인간됨을 엿볼수 있다고들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장 함축된 언어로 구사되는 가사에도 필자의 모습이 비친다고 볼수 있다.

김정남검사의 생활이 바로 그러하다.

20여년간 검사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그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수많이 하였다.

김정남검사가 담당한 어느한 도의 주민들은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고있다. 그것은 그자신이 많은 단위에, 많은 일에 스스로 뛰어들어 헌신 해왔기때문이다.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들, 학교, 탁아소, 유치원들에도 그의 모습은 비껴있다.

이러한 미담속에는 사경에 처한 대학생처녀의 수술립회인이 되어 소생시킨 이야기도 있고



갑자기 실명이 된 배우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밤길을 걸은 이야기도 있다.

김정남검사는 법일군이기에 전에 참된 인간이었다.

인간미가 폭폭 넘쳐나는 그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김정남검사를 자기의 친혈육처럼 따르고있다.

하기에 그는 이러한 나날에 축적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가사에 담았다.

TV연속극 《백학벌의 새봄》의 주제가뿐 아니라 장면노래들인 《농촌진흥 멋이로다》와 《김정은원수님 모시여 내 조국 아름다워라》, TV연속극 《한 검찰일군의 수기》의 주제가 《영원한 나의 태양》은 이렇게 창작되었다.

이외에도 그는 60여편의 가사와 시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건의 상장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었다.

제자의 《어머니》가 되어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 양영경에게는 어머니가 없다. 지난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그날부터 영경이의 얼굴에서는 어두운 그늘이 가셔지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영경이는 자기를 남겨두고 먼저 간 어머니가 그리워졌고 늘 바쁜 직장일로 퇴근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야속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담임교원 박은경의 마음은 몹시도 아프고 쓰리었다. 그는 영경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고싶었다. 은경교원은 시부모님, 남편과 토론을 거듭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일과표를 세웠다.

은경교원은 영경학생의 학습과 소년단생활에 남달리 원심을 쓰면서 그에게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저녁이면 영경이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된 심정으로 학습은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듯이 돌봐주었다. 영경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사를 성의껏 차려주고는 저녁늦게까지 그의 학습을 방조해주었다. 특히 문학을 좋아하는 영경이의 취미를 살려주기 위하여 글짓기지도 많이 해주었다. 날이 감에 따라 영경이는 시도 짓고 작문도 쓸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어느날 영경이는 뜻하지 않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때 은경교원의 남편도 입원치료를 받고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영경이에게로 먼저 향하였다.

지금도 영경이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바라보던 애정어린 눈빛과 수술을 받은 후에는 매일 회복치료에 좋은 음식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입에 넣어주던 선생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새해에도 영경이가 외롭고 쓸쓸할새라 새옷도 마련해주고 온 하루를 그의 집에서 함께 보낸 박은경교원이다.

하기에 양영경학생은 이렇게 진정을 토로 하였다.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스로 엄마없는 제자의 《어머니》가 된 박은경교원은 오늘도 영경이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다.

글 김세현, 사진 김영혁



피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

- 녹차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카테킨은 독물이작용을 하는 간효소의 활성을 강화한다.

- 배추과남새

푸른꽃양배추와 방울양배추 등은 간효소를 활성화하는 글루코시놀라트를 함유하고있다.

- 잎남새

해로운 물질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엽록소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다. 또한 간기능을 유지한다.

- 사탕무우

간과 담낭의 기능을 높여준다.

- 레몬

아침마다 레몬을 둔 더운물을 한

고뿌 마시면 간기능이 어느 정도 촉진된다.

- 사과

빨속의 해로운 물질을 몸밖으로 내보내어 간 등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는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 * *



경리 방옥화

보통강반의 청량음료점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는 사람들로
홍성이는 보통강청량음료점이 있다.

마치도 강변에 닿을 내린 배우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듯한 느낌이 들고 아름다운
풍치가 정겹게 안겨드는 음료점에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과 훌륭한 맥주맛을 보고는
사람들 누구나 저마끔 자기의 심정을 글로
남기고있다.

보통강청량음료점에서는 빵과 맥주를
기본으로 봉사하고있다.

우리 청량음료점에서는
손님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가루음식과 시원한 맥주를 마음껏
맛보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도록 봉사환경과 료리의
질을 더욱 개선해나갈것입니다.



특히 효모빵, 단설기, 닭알빵, 증기빵 등의
밀가루음식들은 눈맛, 입맛이 독특하다. 이외
에도 크르와상, 호트도그, 샌드위치, 햄버거와
같은 다른 나라의 빵들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의례히 찾는 음식으로 되고있다.

이 음료점의 맥주봉사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고있다.

여러가지 빛갈과 거품이 어울린 1번부터 7번
까지의 맥주는 그 개개가 맛이 류별나 단골
손님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맥주를 찾는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긴마을1동 34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원도국로인은 《이곳에서 봉사하는
빵들의 맛이 좋습니다. 여기에 보리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1번맥주를 받쳐마시면 그 맛이란 표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곳 음료점의 훌륭한
봉사와 음식의 맛은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마저 상쾌해지게 합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음료점에서 봉사하는 각종 불고기와 여러
가지 료리들에 대한 인기도 높다.



이곳 종업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음식의 맛을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방옥화경리는 《전국적인 요리축전들에서 우리 요리사들이 출품한 음식들이 여러 차례나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음식의 가지수를 더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하루에도 1 000여명에 달하는 손님들이 찾아와 흥성이는 보통강청량음료점은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이채로움을 더해주고있다.

글 김지성, 사진 김영호



바다가도시에 새로 일떠선 봉사기지들

지난해 함경북도 청진시의 중심부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대중봉사기지들이 새로 일떠섰다.

사계절 물놀이의 진맛을 느낀다

《바다가도시인 우리 청진시에 물놀이장이 생겨나 이제는 해수욕계절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습니다. 물놀이장이 하루가 다르게 소문이 나 청진시는 물론 도안의 다른 군들에서도 찾아오고있습니다.》하며 청진물놀이장 경리 김경옥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2만여㎡의 부지에 건설된 물놀이장의 연건축면적은 7 000여㎡이며 하루 수용능력이 1 000여명이다.

물놀이장은 바다물수조와 아

동수조, 수영장, 덕수터, 초음파수조, 물미끄럼대를 갖춘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과 실내체육장, 체육기재운동실, 전자오락장, 리발, 미용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로 꾸려져있다.

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물미끄럼대이다. 한번 타고도 성차지 않아 두번, 세번, 열번도 넘게 미끄럼대에 몸을 실으며 웃음발을 날리고있다.

그런가 하면 배구, 탁구, 바드민톤 등 여러 체육경기들을 진행하면서 땀을 쫓 낸 다음 물놀이를 하는 재미는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며 청년들은 물론 로인들도 실내체육장을 즐겨 찾는다.

전자오락장으로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있다.

가상현실오락기재를 한번 타고는 또 타는 녀성들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경주의 세계에 빠져 일어설념을 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다.

청진시주민인 현웅은 가족들을 데리고 자주 이곳을 찾ند다고 하면서 정말 평양의 물놀이장들이 부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쟁반국수의 맛에 끌려

청진물놀이장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은 바로 청진물놀이장과 나란히 있는 청진관이다.

산뜻한 합각지붕을 한 조선식 건물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된 청진관은 대중식사실, 가족식사실 등 수십개의 식사실들로 꾸려져 있다.

청진관에서 봉사하는 음식들 가운데서 고기쟁반국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인기있는 음식의 하나로 손꼽힌다.

《우리 고기쟁반국수의 맛이 좋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는데 마치 수도 평양의 유명한 옥류관에 온것같다고 말합니다. 미처 그 수요를 보장하기 힘들 정도입니다.》라고 경리 김금화는 은근히 뽐내었다.

쟁반우에 보기 좋게 놓여있는 닭고기꾸미와 양념에도, 질기면서 매끈매끈한 국수사리가 담겨진 쟁반에 부어지는 향긋한 육수에 도 쟁반국수의 독특한 맛을 잘 살리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있는 이곳 요리사들의 정성이 엿보인다.



그들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요리전시회들에 참가하여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한 이름있는 봉사단위들의 우수한 가공기술과 경험을 적극 습득하고 있다.

바다를 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산물회, 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리들도 맛이 좋아 날이 갈수록 단골손님이 늘어나고 있다.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진관을 가리켜 청진시의 《옥류관》이라고 정담아 부르고 있다.

글 채향옥
사진 전선일

호평받는 천연건강식품

신명건강식품생산소에서 생산되는 천연건강식품들이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왕벌젖과 산꿀, 토봉꿀, 아카시아꿀을 비롯하여 20여가지의 꿀벌산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들은 관광기념품전시회-2025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단위의 꿀벌산물은 맛과 향기, 색깔이 독특하다.

그 비결에 대해 책임자 양은

희는 양봉장으로 정한 백두산 일대의 깨끗한 환경이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생산소가 천연수림의 덕을 많이 본다고 하였다.

천연수림에는 백리향, 만삼, 당귀, 만병초를 비롯한 향료 및 약용식물이 많은 것으로 하여 이곳에서 뜬 꿀들은 천연의 맛과 향기, 색깔이 진할 뿐 아니라 그 약리적 효과가 높다고 한다.

생산소에서는 꿀치는 방법

을 부단히 개선시켜나가고 있으며 저온살균과 진공력파를 위한 설비들을 그췌히 갖추고 천연건강식품으로서의 신선도와 위생안전성 등 품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곳 생산자들은 오미자꿀, 검은도라지꿀, 송이버섯꿀 등 여러 질병치료와 예방에 특효인 기능성꿀제품들로 가지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각이한 수요를 보장하고 있다.

글 강소현, 사진 김영혁





백두산에 묻힌 과거의 비밀을 찾아

지난해 4월 유네스코집행리사회 제221차 회의에서는 특이한 화산지질학적의의와 관광적 가치를 가지는 많은 지질지점들이 분포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백두산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였다.

백두산지역의 자연지리적환경의 풍만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지질학 연구소의 연구집단이 큰 역할을 하였다.

30여년전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백두산탐험대가 조직되어 백두산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 많은

화산지질학적연구자료들이 축적되고 종합체계화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연구집단은 백두산지역의 형성과정과 매 단계의 화산분출특성, 매 지질지점들에 대한 학술적고증에 달라붙었다.

여러해에 걸쳐 이들은 매일 높고 험한 산발을 뚫고 고원지대를 수십리씩 걸으며 낮에는 암석시료를 채집하고 밤이면 측정값들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현지조사를 해나갔다.

보트를 타고 천지를 가로질러 락원온천과 백두온천에 대한 지질조사와 함께 온천의 온도, 수질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증암산과 북포태산의 수십리 산발을 타면서 그 형성과정과 암석학적특성 등을 해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암장의 거동과 활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마다 현지에 나가살다싶이 하였다.

한재호연구사는 해발 2 000m이상 되는 높은 곳에 화산암이 아니라 특이하게 화강암이 드러나 있는 남포태산화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허연 화강암이 드러난 남포태산정점을 코앞에 두고 우리는 폭이 수십m 되는 누운잣나무 숲과 수백m나 되는 물매가 심한 경사지와 맞닿게 되었습니다. 평지라면 몇분이면 가닿을 곳을 무려 1시간 30분을 신고해서야 우리는 정점에 이를수 있었으며 목적인 시료를 손에 쥘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암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구소에서는 1992년에 발행된 도서 《백두산총서》(자연부문)편찬에도 기여하였다.

일반돌로 보일지 몰라도 자기들에게는 보물같이 소중한것이라고, 그 《보물》들을 채집하는 보람은 오직 자기들만이 느낄수 있는것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하나하나의 측정자료, 수값들은 백두산화산, 백두산천지, 정일봉, 천년기대분출물, 탄화목, 리명수폭포 등 국제적의의를 가지는 수십개 지질유적들의 특징과 가치를 새롭게 론증하는 과학적담보로 되었다.

땅속에 숨겨진 과거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내며 오늘도 이들은 탐구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있다.

글 김성경, 사진 리석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은 백두산지역을 현지조사하여 많은 지질유적들의 특징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기백있고 흥취나는 민간기악곡

《신아우》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오랜 역사적 과정에 창조하여온 기악유산중의 하나인 함경도 지방의 유명한 통소곡 《신아우》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아우》는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후반기에 활동한 민간기악단과 개별적인 기악연주가들속에서 널리 연주된 대표적인 민간 기악곡입니다.

신아우라는 말은 기악음악종류의 이름인 동시에 악곡의 명칭으로도 됩니다.

신아우의 어원에 대하여서는 2가지 설이 전해져 오고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음악을 들으면 《신이 나오》 또는 《신나오》라고 하는 함경도지방의 방언에서 유래된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음악이 종류적으로 볼 때 악곡형태가 모두 59가지나 된다는데로부터 유래된 설입니다.

《신아우》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15세기의 재능있는 음악리론가이며 연주가인 박연이 새로운 아악을 창제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전해지던 민속가요, 향악곡들을 수집정리할 때

그가운데 들어있던 《진아위》가 어원적으로 《신아우》와 일맥상통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아우는 기악연주형식에 따라 각 지방의 고유한 음악음조에 기초하여 매우 다양하게 불리워졌는데 함경도지방의 통소곡 《신아우》가 유명 하였습니다.

함경도지방의 《신아우》는 통소연주가들에 의하여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군가로 많이 불리웠으며 민간에서도 민속놀이나 집단적인



로동의 월참 등에 많이 연주되었습니다.

높고 긴 호소적인 서두음에 이어 빠르고 경쾌한 악구들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는 통소곡 《신아우》는 민요6음조식에 기초하고있으며 휘모리장단을 타고 기백있게 흐르는것이 특징적입니다. 리듬이 선명하고 절도가 있으며 마치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는듯한 느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신아우》는 함경남도 단천지방에서 활동하였던 민간기악연주가들의 집단이었던 《물계》에 의해 오래동안 년년이 계승되어왔습니다.

1961년에 이 지역에서 확인된 《물계》의 통소명수들만 하여도 리석표, 전용선, 김학연 로인들을 비롯하여 15명에 달합니다.

1961년 2월에 진행된 전국농촌예술축전에서 리석표로인은 민족기악합주 《신아우》의 통소 독주를 잘하여 청중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 습니다.

리석표로인은 우수한 통소연주술로 하여 그해 11월 65살의 나이에 평양음악대학 민족음악학부 (당시)교원으로 배치되었으며 그후 재능있는 통소연주가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지난 천리마시대에 민간기악곡 《신아우》는 합창곡 《혁명을 위하여》와 같은 큰 규모의 성악형식으로 편곡되어 우리 인민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악곡은 통소독주는 물론 목금독주, 민족기악합주, 민족관현악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악음악형상으로 널리 연주되고있으며 그 음조들은 새 음악창작의 바탕으로 되고있습니다.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민간기악곡 《신아우》는 예술단체들의 공연무대들에서 인기 종목으로 되고있으며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기관들에서 민족기악교재곡으로 보급되고있습 니다.

주체음악예술의 대화원속에서 민간기악곡 《신아우》는 오늘 보다 새로운 형상창조로 인민 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조국에 오시는 기회에 관록있는 예술단들에서 형상한 《신아우》를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백있고 흥취나는 선률 속에서 우리 민요특유의 정서를 한껏 느끼게 될것입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실장 조일경



조선장기수풀이 (43)

장기격언

둘잡이 두번하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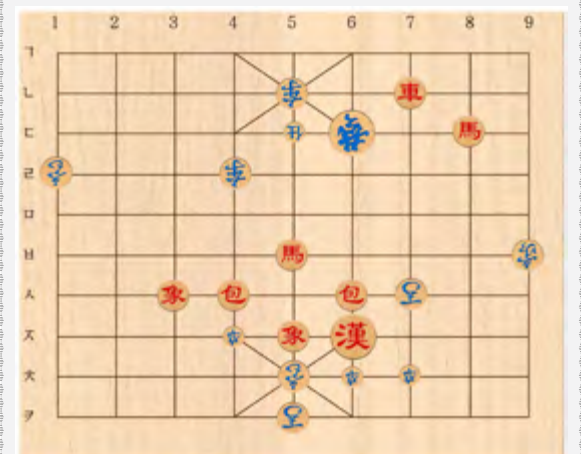
이 말은 한개의 《쪽》을 죽이면서 상대방의 《쪽》을 두개 잡으면 력량관계에서 자기측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둘잡이는 《상》 하나로 《졸》 2개 또는 《말》이 《상》, 《졸》을 먹거나 《포》가 《말》, 《졸》 또는 《말》, 《상》 등을 먹는것을 넘두에 두고있다.

한편 이 말은 둘잡이를 두번하면 이긴다고 하여 무턱대고 하지 말고 형세에 따라 《쪽》들의 배치 상태에 따라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장기수풀이 (42)의 답

ㄷ7차ㄴ7, ㄴ6궁ㄷ6, ㄴ3차ㄴ5, ㄹ4말ㄴ5,
ㄴ7차ㄴ6, ㄷ7말ㄴ6, ㄱ1포ㄱ6, ㄴ6말ㄷ8,
ㄱ6포ㄷ4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송양서원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송양서원은 고려말에 처음 세우고 후에 고쳐지은 사립교육기관이다.

정몽주의 시호를 붙여 문충당이라고 부르다가 1575년부터 송양서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송양서원은 자남산 동남쪽중턱의 약간 비탈진 곳에 서남방향을 중심축으로 하여 대칭적으로 규모있게 배치되어있다.

장방형의 높은 담장으로 둘러막은 서원의 바깥삼문으로 들어서면 마당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서있고 좁더 나가면 3개의 계단이 설치되어있는 높은 축대위에 강당이 있다.

강당뒤에 있는 3개의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 서원안 앞뒤를 가로막은 담장을 지나면 서원의 중심건물인 사당에 이른다.

사당은 1.3m의 높은 밑단 위에 앞면 4칸, 옆면 2칸으로

되어있다.

잘 다듬은 홀림기둥에 두공이 없으며 겹처마형식의 배집지붕을 이었다.

강당은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서 높이 1.6m 되는 밑단 위에 세워졌다.

잘 다듬은 홀림기둥에 두공이 없으며 홀처마형식의 합각지붕을 이었다.

강당의 가운데에는 마루를 깔고 량쪽방에는 온돌을 설치하였다.

당시 학생들의 합숙으로 쓰

인 동재와 서재는 두공이 없는 배집지붕의 건물로서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규모가 큰 건물들이다.

송양서원은 당시 지방의 교육형편과 서원의 건축형식을 보여주며 정몽주와 관련된 전설이 깃들어있어 널리 알려진 유적의 하나이다.

글 및 사진 리철



정몽주의 화상



애국명장들의 묘와 비

개성시의 역사유적들 가운데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에서 공을 세운 애국명장들의 묘와 비들도 있다.

그것이 바로 송상현유허비, 류극량유허비, 이정암묘이다.

송상현(1551년-1592년)은 임진조국전쟁때 동래부사로서 왜적의 침략을 막아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애국명장이다. 1733년 그의 집자리에 비를 세웠고 오늘은 고려박물관에 보존되어있다.

류극량(?-1592년)은 무과에 급제한 별장으로서 임진조국전쟁때 개성지방의 의병들을 이끌고 진행한 전투에서 최후를 마친 애국명장이다. 사람들은 그의 공적을 잊지 않으려고 집자리에 비를 세웠다. 현재

고려박물관에 보존되어있다.

리정암(1541년-1600년)은 1561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벼슬은 연안부사, 동래부사, 병조참의 등을 지냈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지난날 부사로 있었던 연안으로 가서 의병을 조직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분충토적(충의를 떨쳐 왜적을 치자)》라는 기치를 들고 1 000여명의 의병으로 3 000여명의 왜적을 물리쳐 연안성을 지켜냈다. 이로 인하여 연안아래의 13개 고을이 모두 수복되었다. 당시 임금은 리정암의 공적이 리순신의 공적과 같다고 높이 표창하였다.

그의 묘는 연강리에 있다.

글 김세현
사진 리석



송상현유허비



류극량유허비

삼일포

삼일포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이다.

주변의 모든 곳이 아름답고 우아한 자연미를 담고있다.

삼일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경치좋은 여러곳을 한곳에서 하루씩만 구경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삼일포에 와보니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답고 마음이 끌려 무려 3일동안이나 묵으면서 이곳에서 놀았다고 한다. 이로부터 삼일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 * *



상식

선조들이 리용한 낫쟁반

우리 선조들은 수천년전부터 청동합금기술을 발전시켜오면서 낫으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리용하였다.

낫제품들가운데는 음식그릇으로서 리용된 낫쟁반도 있다.

낫을 일명 《낫쇠》라고도 불렀다.

낫쟁반은 낫으로 만든 운두가 낮은 둥근 음식그릇으로서 밑면에 높직한 굽이 달려있다.

쟁쟁 쇠소리가 나는 소반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낫자이반이

라고 불렀으며 후에 낫쟁반으로 고쳐졌다.

낫제품생산중심지의 하나인 평안도에서는 낫그릇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낫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특히 낫쟁반은 평안북도 정주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낫쟁반의 주성분인 구리는 위액분비를 잘되게 하고 호흡기관의 폐를 제때에 씻어내며 혈압을 고르게 해주는 작용을 하므로 위장과 간장, 호흡기계통의 여러가지 질병들을 미리막는데 효과적이었다.

평양의 쟁반국수가 더욱 유명해지게 된것은 국수감, 국수조리법, 국수맛이 좋은데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수를 담은 그릇인 낫쟁반이 민족적향취를 돈구어주면서 보기 좋은데도 있었다.

낫쟁반은 오늘날도 민족적향취를 한껏 풍기며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대중급양봉사기지에서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 있다.

* * *



애국적시인 리제현

고려시기의 문인이며 정치가였던 리제현(1287년-1367년)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의젓하였으며 글을 잘 지어 장차 이름을 날 문인으로 인정되었다.

15살에 과거시험에 급제 한 그는 후에 우정승, 문하시중의 높은 벼슬을 하였다.

리제현은 젊은 시절 원나라에서 고려정부의 대변인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이름있는 학자, 문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생활과정에 조국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며 큰 나라에 굴종하는 봉건 통치배들의 사대주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비판적립장에 서게 되었다.

시 《북쪽으로 가며》, 《동지날》을 비롯하여 이국살이과정의 체험을 노래한 그의 시들에는 시인의 애국주의사상 감정이 표현되어있다. 특히 시

《고향에 돌아가고파》와 《장안리판에서》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조국에 대한 생각과 우리 인민들의 생활풍습에 대한

애착, 조국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를 절절히 노래한것으로 하여 대표적작품으로 알려져있다.

리제현의 미학적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가의 체험과 창작실천에 대한 문제이다. 그는 《시라는것은 뜻이 가는바니 마음에 품은것이 뜻으로 되고 그것을 말로 나타내면 시로 된다.》고 하였으며 《보는바가 크면 이루는바도 높고 체험하는것이 열렬하면 지키는바가 확고하다.》고 하면서 작가는 생활을 깊이 탐구하여야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미학적견해와 애국주의적생활지향으로부터 리제현은 민간소재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고 창작에서는 정서가 짙은 시가작품들을 많이 썼다.

리제현은 《력옥패설》과 같은 산문도 썼다. 여기에는 력사적산문, 전기적산문, 구전설화, 시론 등이 담겨져있다.

그는 말년에 고려의 력사를 편찬하는 사업에도 참가하여



많은 글을 남겼다. 그는 고려말기의 재능있는 시인으로서 그의 문학적재능은 일찍부터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있으며 그의 진보적경향의 시들은 이 시기 문학사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문집으로 《익재집》(15권)이 전해지고있다.

* * *

유모아

책도적

명절날에 손님들이 놀러 오게 되어있었다.

전날 저녁 남편은 손님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는 책장에서 대부분의 책을 꺼내어 옷장안에 감추는것이였다.

남편의 괴이한 행동을 보고 안해가 놀라서 물었다.

《여보, 그게 무슨짓이에요. 매일 오는 손님들은 모두 교양있는분들이예요. 당신의 책을 훔쳐갈 사람 한명도 없어요.》

남편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하였다.

《그래서가 아니요. 그들이 자기의 책이라는걸 알아낼수 있단 말이요.》

* * *

정선이 그린 금강산산수화

우리 나라 화단의 17세기 말-18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적 풍경 화가의 한 사람인 정선(1676년-1759년)이 어느 해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그는 만폭동과 구룡연, 삼일포와 해금강의 아름다운 절경을 수십수백장의 그림에 담았다. 그가 그린 산수화들이 얼마나 생동하였던지 마치도 금강산을 그대로 떠 옮겨놓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정선의 옆집에 사는 녀인이 안해에게 비단치마를 보내어왔다. 그런데 일이 안될세라 안방에서 그것을 펴보던 안해가 실수로 고기국그릇을 엎지르다니 아름다운 비단치마가 크게 어지러워지게 되었다. 안해는 커다란 근심에 쌓여 울먹거리기 시작하였다.

말없이 웃기만 하던 정선은 안해더러 눈물을 걷고 어서 치마말기를 뜯고 주름을 펴서 어지러워진 부분을 씻으라고 재촉하였다.

안해는 재빨리 남편의 말을 따랐다.

이윽고 비단치마가 마른 후 정선은 안해가 손질한 비단폭을 방안에 쪽 펴놓았다. 그리고는 비단폭우에 붓을 대었다. 그의 안해는 대체 어찌하려고 하는가

야단하면서 남편을 말렸다. 그렇지만 정선은 그러거나말거나 붓을 자유롭게 놀리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기름얼룩이 있던 비단폭우에는 금강산그림이 크게 그려졌다.

그 그림이 얼마나 생동하고 섬세하였던지 금강산 1만 2 000봉우리와 골짜기를 빠짐없이 다 옮겨온듯했고 현란하기 그지없었다.

정선은 나머지 두폭의 비단에도 금강산을 그렸는데 모두가 기기묘묘하였다. 둘도 없는 보배로 될만하였다.

그런 후 비단치마의 임자가 찾아왔다.

정선은 그에게 《내가 그림그릴 의욕이 부쩍 동해있던 참에 마침 댁의 비단치마가 우리 집에 와있다가에 거기다 금강산 1만 2 000봉을 옮겨놓았소. 부인과 딸이 들으면 크게 놀랄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고 걱정하면서 그림을 가져다 펴보이었다.

비단치마의 임자는 《이것은 천하보물이오이다!》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간 후 푸짐히 음식상을 차려 정선에게 사례하였다.

치마의 임자는 그림 세폭가운데서 제일 큰것은 집안의 보물

로 장식하고 나머지 두폭은 매마침 연경(오늘의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가지고갔다.

정선이 치마폭에 그리었던 금강산그림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화사에도 가게 되었다.

마침 그림을 구하려고 왔던 사천성의 중 한명이 그 그림을 보고 참 잘 그렸다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절간 하나를 새로 세웠는데 이 그림을 부처님뒤에 붙이였으면 좋겠소이다. 약소하지만 은 100냥에 파는것이 어떠하신지?》

그런데 이때 남경에서 온 선비 한사람이 자기가 100냥에 20냥을 더 얹어주겠으니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조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중이 크게 성을 내며 내가 이미 값을 정하고 사기로 작정한건데 명색이 선비라는 사람이 도리도 없이 논다고 책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은 150냥을 내놓는것이였다.

히나 그림의 임자는 《저는 당신처럼 그림의 가치를 잘 아시는분을 존경합니다. 스님께서는 50냥만 받겠습니다.》하며 그림을 중에게 넘겨주었다.

* * *

릉라도은행나무

릉라도은행나무는 풍치수려한릉라도에서 자라고있다.

수백년동안 자란 이 나무는 수나무로서 열매는 달리지 않는다.

나무밑둥둘레는 4. 4m이며

2m정도우에서부터 첫 가지가 뻗어나오고 올라가면서 20여개의 굵은 가지들이 비자루모양의 갖을 이루고있다.

나무의 높이는 23m이며 나무갓너비는 동서 22m, 북남 21m

로서 다른 은행나무들에 비해 수세가 좋은것으로 하여 무게가 있어보인다.

나무는 웅장한 자태로 하여릉라인민유원지일대의 풍치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